

확 달라진 아반떼·신형 K5...중국인 시선 사로잡았다

현대·기아차 '베이징 모터쇼'서 중장기 전략·비전 발표 젊은 이미지·기술력에 현지 전략모델 앞세워 시장 공략

현대·기아차가 '2020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주력 차종이면서 확 달라진 신형 K5와 아반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국제전시센터(CIEC)'에서 개막한 '2020 베이징 국제모터쇼(The 16th Beijing International Automotive Exhibition, 이하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국 내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발표하고 중국 시장을 공략할 신차를 선보였다.

먼저 기아차는 중국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브랜드 방향성인 'Trend setter inspiring young generation(젊은 세대에 영감을 주는 트렌드 세터)'을 주제로 참가해 기아차의 젊어진 이미지와 높은 기술력을 알렸다.

이날 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선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 체제 전환에 맞춰 중국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2025년까지 전동화 사업 체제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전동화 모델의 판매 비중을 30%이상

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볼륨 모델 육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향상, 매년 프리미엄 차량 출시, 첨단 자율전차보조시스템 및 커넥티드 기술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신형 카니발을 중국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신형 카니발은 기존 미니밴의 전형성을 탈피한 세련된 디자인과 프리미엄 실내공간, 최첨단 편의사양 등을 갖춘 GUV(Grand Utility Vehicle)로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9월 초 출시된 중국형 올 뉴 K5(All New K5)도 함께 선보였다. 신형 K5는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으로 중국의 Z세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국형 신형 K5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에 이전 모델보다 가로 너비가 확장된 타이거 노즈(Tiger Nose) 그릴과 심장 박동(Heart Beat)을 연상시키는 헤드램프가 더해져 한층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실내는 입체적인 디자인의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계기



중국에서 처음 공개된 중국형 아반떼 '엘란트라'.

판) 등을 적용해 첨단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특히 3세대 신규 플랫폼(i-GMP)을 적용해 경량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연속 가변 밸브 트레일레이션(CVVD) 기술을 적용한 가솔린 1.5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의 동력 성능과 연비 경쟁력을 갖췄다.

기아차는 대표 모델 K5가 우수한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도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020 베이징 모터쇼에서 1천191㎡(약 360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K5, K3, KX3, KX5, 스포티지 등 양산차 ▲신형 카니발 ▲K3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CTCC) 레이싱카 등 총 10대의 차량과 K5에 적용된 3세대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 관련 전시물 3개를 선보였다.

특히 중국 젊은 층을 겨냥한 기아차의 기술력을 이색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K5 존과 CTCC 레이싱카 존을 별도로 구성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 참가해 중국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 중국형 올 뉴 K5.

전용 기술브랜드 'H SMART+'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H SMART+를 소개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인간 중심의 개발 철학을 바탕으로 구현된 현재와 미래 기술을 전시하며 스마트한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현대차의 기술 비전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략차종인 신형 투싼(현지명: 투싼L)과 중국형 신형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를 공개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어 폴사이즈 SUV '벨리세이드'의 수입 판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수입차 사업 재개 계획도 함께 밝혔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무대로 고성능 전기차 'RM20e', EV 콘셉트카 '프로페시'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현대자동차 글로벌 전동화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H SMART+ 기술로 중국 고객들에게 스마트한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현지 전략 모델들을 앞세워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라인업 확보를 비롯해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같은 중국 시장 맞춤형 전략으로 중국 내에서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테슬라 "2천900만원 '반값 전기차' 3년내 출시"...국산은 4-5년 전망

테슬라가 3년 안에 가격을 2만5천달러(약 2천900만원)로 낮춘 '반값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가격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평균 가격이 테슬라가 제시한 3천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려면 4-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야 할 뿐 아니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 모델 생산이 본격화돼야 전기차 가격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 중인 국내 완성차업체 전기차의 평균 가격대(보조금 적용 이전)는 소형차 4천563만원~4천880만원, 준중형차 3천920만원~4천170만원이다.

전기차 가격의 핵심은 배터리다. 전기차 원가의 30~4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배터리 단가가 길로와트당 100달러까지 내려가 전기차의 유지비용이 내연기관차와 같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5년께다.

만약 배터리 가격이 56%까지 낮추겠다는 테슬라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여기서 2-3년 가량을 앞당기는 셈이다.

업계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단가가 테슬라가 제시한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가격이 3년 안에 3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렵게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전기차 전용 모델들이 대거 출시되며 가격 경쟁이 본격화돼야 평균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현대차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국내 완성차업체가 2022년께부터 E-GMP 기반 전기차를 연간 50만대 이상 생산한다면 3-4년 뒤 부품 가격이 떨어지는 한편 가격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전용 모델 라인업이 늘어나면 가격 인하는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완성차업체가 시장 선도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 수익률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면 4-5년 내에도 충분히 3천만원 미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 공개

커피머신·의류케어기 등 탑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통한 새로운 고객 경험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28일 개인 맞춤형 고객 경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 비전 전시물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IONIQ Concept Cabin)'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에 공개한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개인화된 디지털 공간, 움직이는 사무실, 편안한 휴식 공간 등 개인 맞춤형 공간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은 '스케이트보드(Skateboard)'라 불리는 실내 공간을 기반으로 차량 내 일상 가전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량 내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와 협업으로 제작된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에는 ▲슈즈케어기 ▲커피머신 ▲의류케어기 등 고객 경험 구성품이 탑재됐으며, 차량 천장에 설치된 ▲플렉서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떠한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차량에서 내리면 실내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UV LED 조명'과 청소하는 '플로어봇(Floor Bot)'이 동작한다. 또한 천장에 설치된 'UV LED 조명'은 실내를 살균하고 바닥에 설치된 바(Bar) 형태의 '플로어봇'은 먼지를 흡입하며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기능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초 출시될 준중형 CUV '아이오닉 5'를 필두로 고객 일상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차량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은 기존 차량에서 볼 수 없는 효율적인 내부 공간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임후성기자



금호타이어 "19년째 사랑·희망 전해요"

추석 명절 '이웃사랑 캠페인'

금호타이어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곡성·평택 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2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웃사랑 캠페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명절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제수용품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평택 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약 1천2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준비했다.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제수용품은 생산구성을 비롯해 어룡동 주민센터, 더불어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평택시 포승면사무소 등을 통해 230명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공장장 황호길 상무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정성껏 담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